

충남 도시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전망과 과제

- 충청남도 지역발전거점 육성과 낙후지역의 자립적 특화발전 -

오용준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I.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충남의 지역개발환경

충남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간의 인구불균형과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다. 충남의 인구는 최근 5년동안 연평균 0.82%씩 증가(동기간 전국 인구증가율 0.49%)하여 2008년 현재 1,855천명(전국 인구대비 4.1%)에 달하고 있다. 인구성장을 주도하는 지역이 충남 서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충청남도는 금강과 인접한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균형발전조례를 제정('07.3)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2008년 현재 고령화율이 13.7%(전국 고령화율 10.2%)로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충청남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2007년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57조 5,634억원(2005년 기준년 가격)으로 전국총생산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충남의 GRDP 비중이 전국 GDP의 4.5%였던 것에 비하면 1.5%가 높아졌고,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도 9.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충남의 계획입지는 2008년 현재 국가산업단지 5개소(면적기준 전국의 4.3%), 일반산업단지는 35개소(전국의 12.9%)가 지정되어 있고, 환황해권 게이트웨이(Gateway)로 황해경제자유구역(아산·서산·당진, 평택·화성 일원 5,505만㎡, '08. 5. 지정) 1단계('08~'13) 개발이 진행 중이다.

충청남도는 그동안 타 광역시·도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여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추진 전략 중 하나인 지역간 협력과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을 추구하는데 있어 일정기반을 갖추고

있다. 충남·경기, 충남·대전·충북, 충남·전북간 상생협약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개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거나 계획중에 있다.

충청남도에는 신성장거점도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신도시, 아산만권신도시,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등의 개발이 진행중이다. 신성장거점도시의 계획적인 추진뿐 아니라 신성장거점도시 주변 지방도시의 도심공동화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신성장거점도시와 주변도시간의 상생발전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Ⅱ. 미래 도시 및 지역개발의 전망

미래학자인 존. 네이스비트(J. Naisbitt)는 21세기의 메가트렌드(Mega Trend)로 감성과 문화의 중심시대(The Age of Feeling), 여성중심시대(The Age of Female), 상상력과 창조력이 성장을 선도하는 시대(The Age of Fiction)를 강조하였다. 또한, 2005년 경제포럼기구인 다보스클럽은 2020년의 전지구적 트렌드(Global Trend 2020)로 환경생태와 에너지 자원 문제의 심각성이 증대되고(The Age of Climate Change), 고령화 사회(The Age of Aging) 및 여성 중심의 사회(The Age of Women)로 변화하며, 모든 사회계층이 혼합(The Age of Mixing)되어 글로벌화되는 사회가 조성되고 소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시대의 변화를 선도(The Age of Creative Innovation)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미래도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자연생태계(Eco-Structure)를 기반으로 하는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 및 지역개발이 보편화되고, 저출산·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주택수요가 다양화되며, 여성의 생활편의를 강조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구조로 변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1세기 도시는 다문화 중심의 창조도시(Creativeness City)로 변모하여 고유의 전통문화를 기초로 외래문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고, 미래사회가 성장위주의 다축적구조에서 복지중심의 다소비구조로 전환되면서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한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정책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전략에 부응하기 위해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개발이 추진된다.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초광역권 개발전략에 따라 충남 서해안권은 황해 국제관광·융복합 메가경제권으로서 글로벌 지역경쟁력을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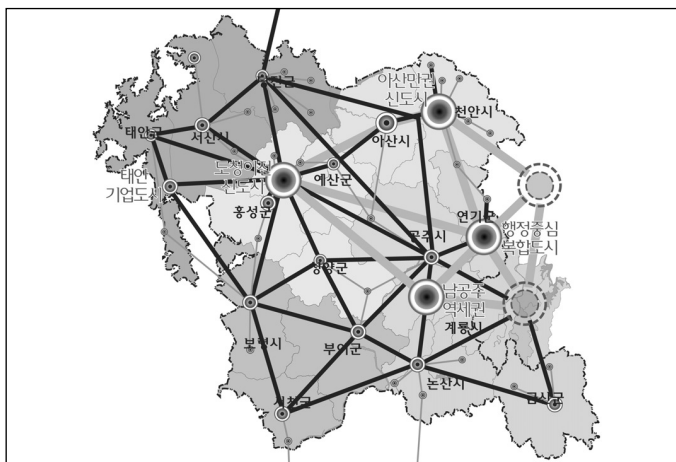
화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충청권 광역경제권은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부각되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인 대한민국 실리콘벨리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축하여 아시아 및 세계지식·과학의 지식지대(Knowledge Platform)로 발전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초광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이 국가 및 지역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기초생활권은 충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창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Ⅲ. 지역발전거점 육성과 낙후지역의 자립적 특화발전전략

1) 지역발전거점도시와 주변도시간 네트워크 강화와 상생발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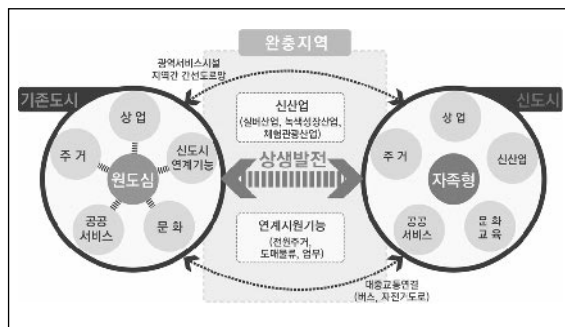
충청남도는 국가성장거점도시와 지역성장거점도시가 도시공간구조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가성장거점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도시화전략과 자족도시방안을 모색하여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로서 국가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행정·교육의 중심도시(도청신도시), 기업도시(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역세권 개발도시(천안·아산역, 남공주역), 관광·문화도시(백제·내포·기호유교문화권) 등 권역내 지역발전거점도시의 계획적인 개발과 정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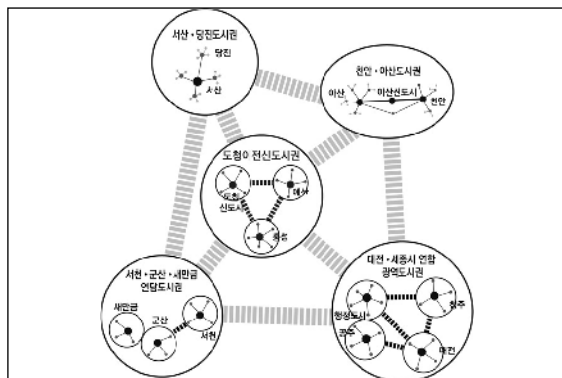
〈그림 1〉 지역발전거점도시와 주변지역간 네트워크 도시체계

동시에 지역발전거점도시와 주변도시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신성장거점도시와 기존도시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연계지역(중간완충지역)에는 도매물류기능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상생발전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기적으로는 신성장거점도시와 주변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도심공동화 방지사업, 농산물 직거래망 사업, 광역적 도시계획시설 공동이용사업 등) 추진을 위한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신성장거점도시와 기존도시와의 상생발전 구조

정부는 광역경제권의 지역개발전략으로서 대도시권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대도시권이라 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대도시권, 아산만 연담도시권이 광역경제권의 성장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청권내의 다양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KTX 역세권(천안·아산, 남공주)을 지역성장 네트워크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고 남공주 역세권 개발은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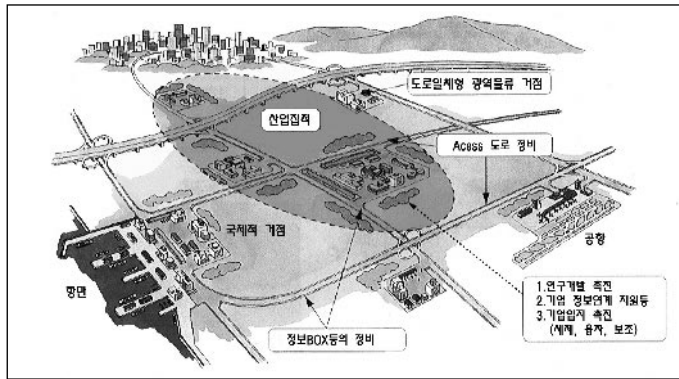
〈그림 3〉 대전·충남지역 광역·연합도시권의 구성과 연계

2) 낙후지역의 자립적 특화발전과 금강 살리기를 통한 금강 연합도시권 개발

첫째, 충청남도는 지역의 자립적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성의 자원화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의 『신발전 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자립적인 특화발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충남의 낙후지역 발전을 주도해온 특정지역 개발의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다. 내포 문화권의 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일부를 변경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기호유교문화권을 신규로 개발하여 창조적인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호유교문화권은 기호유학의 본산이자, 산림문화의 중심지, 명문 종가문화로 대별되는 기호유교문화권을 개발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고유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외래문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 중심의 한민족문화 허브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한다.



〈그림 4〉 주요 거점 및 집적지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예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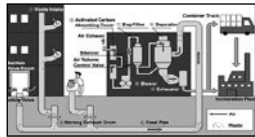
야 한다. 금강 연합도시권 개발은 수변공간과 연계된 도시 및 농·산·어촌 재생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거점을 육성하여 금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강유역 통과고속도로의 직접적인 영향권내에 있는 IC 연결부와 호남고속철도 남공주 역세권지역을 지역활성화 거점으로 개발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금강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금강 연합 도시권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행정구역이 아닌 금강유역의 개발권역 단위로 접근하고, 금강유역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계교통망 및 중추 시설을 확충하며 시·군간 산업적인 보완관계를 형성해

3)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 조성 및 창조적 도시재생

첫째, 충청남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조성하여 화석연료 소비 중심의 도시에너지 소비비중을 저감해야 한다.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는 에너지 투입(input)·폐기물 배출(output) 최소화, 탄소흡수 최대화, 신·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 등의 계획목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무엇보다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공간계획, 도시건설, 건축물, 에너지, 교통)을 조속히 수립하여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로 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신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아산만권 신도시, 태안기업도시 등)에 대해 탄소중립(Carbon Neutral) 개념과 U-에코시티(U-Eco City)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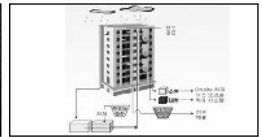
폐기물 관로수송시스템



입체녹화발전



태양광패널



분노분리시스템

〈그림 5〉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도시조성기법 예시

기존 도시에 대한 저탄소 에너지 저감시책사업으로는 가로등의 LED를 교체하는 사업에서부터 공공기관 옥상정원 조성사업이나 건강+에너지생산 체험 시범학교를 조성하는 사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특히, 충청남도에서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참 아름다운 마을, 역사와 문화가 담긴 녹색미소 마을, 살기좋은 마을 조성사업 등을 에너지 자립 농어촌 정주형 주거단지 시범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환경정책 'Green & Clean 6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아토피를 없애기 위해 아토피 치유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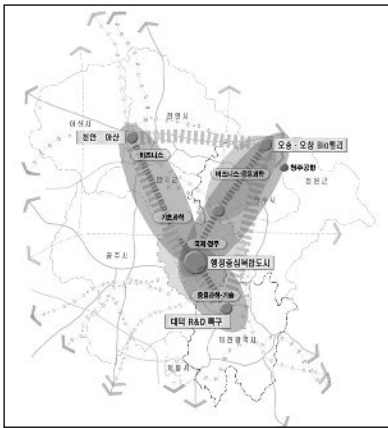
둘째, 활력 있는 창조적 도시재생을 추진하여 중소도시를 지역활성화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지역특색과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개성 있는 상업거점을 조성하고 전통재래시장은 역사문화·관광자원, 주변지역 등과 연계하여 특색 있게 정비해야 한다. 농·산·어촌 등 기초생활권에는 부족한 의료·문화·체육·교육서비스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노후화된 공

공청사·건축물(주민지원센터, 역사적 건축물 등)은 정비하여 주민커뮤니티 시설로 활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적·역사적인 관점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앙정부와 충청남도는 지역개발정책과 문화재보존정책을 연계한 고도보존정책을 추진하고 백제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근대문화유산 집적지인 아산, 예산, 서천, 강경 등을 대상으로 근대문화유산의 보전과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장항선 폐선부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내포문화권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와 걷고 싶은 ‘마실 길’을 조성하여 국제적인 슬로우 지역(Slow Region)으로 육성해야 한다.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과 역사 스토리텔링(Story-Telling) 등을 ‘마실 길’ 조성으로 관광명소화하고, 연계 관광프로그램을 브랜드화해야 한다.

4) 세계경제의 직교류기반 확대 및 산업촉진 생태계 마련



〈그림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

충청남도는 글로벌 산업입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국방과학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새로운 지역활력기반을 구축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해외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국적인 도시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창조적 환경에서 기초과학을 기반으로 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글로벌 성장거점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생명과학단지, 천안·아산 산업지대를 4개 거점으로 상호 연계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과학산업의 집적지역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택·당진항의 항만배후단지인 내항지역에 대해 국제도시화 전략을 추진하여 충남+경기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내항지역은 동북아 최고의 저탄소 에너지 절약형 국제물류산업단지(물류+제조)로 조성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하여 항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아산만권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글로벌 산업입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전략산업(자동차·디스플레이·철강·석유화학)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유틸리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5) 전방위 교류·교역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 교통체계 구축

서해안권내 경제자유구역, 항만, 주요 관광거점간의 원활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고속간선 교통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고속국도, 고속철도 및 기간철도, 항만건설 기본계획 등)의 적기 추진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거점도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을 조기에 시행해야 한다.

제2서해안고속국도 건설(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등 고속국도의 물류비를 저감하고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기존 계획을 조기에 시행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철도(서해선복선 전철, 서해안 산업철도, 충청선 산업철도)를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

서해안권 주요거점과 내륙도시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충남의 남북축 기간교통시설과 동서축 간선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거점지역과 고속국도 미연결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 혹은 순환도로 등을 연결하여 고속의 이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충남 석유화학단지, 대산항, 도청신도시 등과 대전권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당진~천안 고속도로 건설, 당진~대산 고속도로 건설, 당진~태안간 고속도로 건설(초광역 예시사업), 보령~공주 고속(화)도로 건설, 충청선 산업철도(조치원~행정도시~보령), 서해안산업선 철도(태안~천안) 건설을 추진하여 남북~동서간의 광역교통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해안권의 국제관광거점을 연결하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반국도 77호선을 해안 경관도로 및 주요 관광거점을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권의 무역항 및 공항시설 등을 확충하여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국제 교역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환황해권의 국제교역기능을 강화하고 항만비즈니스의 물류 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항만 및 배후물류단지 건설을 조기에 시행하고, 항만배후도로나 철도 인입선 건설을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